목회자 칼럼

새로운 천 년을 맞이하며

임영수 목사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새로운 해, 새로운 천 년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세대가 밝아오는 시점에서 모든 사람들이 호기심과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되면 우리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한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더욱더 좁아질 것입니다. 공간이 좁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세계가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컴퓨터와 각종 통신 정보망들이 발달하면서 짧은 시간에 좁은 공간 안에서 많은 양의 사건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들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대신에 많은 혼란을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많은 양의 정보는 우리들에게 가치관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면 종교가 더욱 쇠퇴해지면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매우 고갈될 것입니다. 그 결과 건전치 못한 사교(邪敎)들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현재의 종교들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연 환경이 극도로 파괴되어 가면서 삶의 환경이 더욱 나빠질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생태계가 파괴되어 간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우리의 자연 환경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실 물, 숨쉴 공기가 극도로 부족해지면서 삶은 더욱 더 고통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의 재앙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간관계의 단절로 소외 현상이 더욱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사람들이 마약·알코올과 같은 것에 의존하는 현상이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보다 마약이나 폭력의 문제는 더 큰 사회 문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더 우려되는 것은 전통적인 가정 제도가 무너지면서 사람들은 더 많은 마음의 고통을 앓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신화나 동화와 같은 상상적인 세계에 대한 동경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과학과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 정서적 메마름은 자연히 논리적이며 지성적인 것보다 직관적인 면에 대한 추구가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저의 좁은 소견으로 미래를 내다볼 때 우리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소망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예측하면서 교회가 세상에 대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라는 문제보다 교회 자체가 생존해 가는 것조차도 매우 힘들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변화의 상황에 적응해 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제도 중심의 교회 유형에서 사역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역 중심의 교회란 디아코니적 교회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공동체적 교회 유형을 의미합니다.

교회도 일종의 사회 속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제도와 조직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너무 제도와 형식에 묶여 있어서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해 갈 때 교회의 생명력은 죽게 됩니다. 그것보다는 건전한 영성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적 삶의 훈련, 치유, 섬김, 선교, 기독교적인 문화에 더 깊은 관심을 기울여 갈 때 교회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교회는 앞으로 우리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창조적 사역에 참여해 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의 현실에서 체험해 가면서 현실에서 의미와 소망을 가지고 창조적 삶을 살아가면서, 한편 생의 궁극적 목표를 향해 현실을 부단히 초월해 갈 것인가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제도와 조직, 형식에 안주해서는 안됩니다.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현실에서 지속적인 창조적 삶을 형성해 가면서 부단히 현실에서 자기 초월을 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기업하는 사람들이 모여 교회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의 궁극적 목표를 향해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순례자들의 삶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조직과 제도는 이 순례의 길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봉사직(목사·장로·집사·권사)들도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대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교회 공동체가 많이 나타나야 합니다. 낡은 제도와 인습에 묶여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 있는 교회는 더 이상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무종교 시대에 진정한 종교가 필요합니다.

함즐함울

즐거워 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 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세22호 (격월간)
발행일 2000년 1월
발행처 주님의교회 출판부

주님의교회

(138-220)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 교내)
주님의교회
T. 416-5181~2 F. 416-5180
인터넷 ID : http://www. Lord - church. or. kr

CONTENTS

1
새로운 천 년을 맞이하며 / 임영수 목사
2
나의 묵상·단상·공상 / 김소일 장로
3
안사무엘 목사의 이야기 시리즈 (3) / 안사무엘 목사
4~7
특집 / 울려 보내라 울려 들여라
8
신앙고백서 / 최윤철 성도
9
청년부 활성화를 꿈꾸며 / 김원재 전도사
10
모자 / 조경옥 집사
횡설수설 / 박용천 집사
11
교회소식
교우동정
신앙 클리닉
법률상식 / 황용환 집사
12
시 / 이희숙 집사
의학상식 / 김찬숙 집사
맛있는 요리코너 / 김갑수 권사
만화 / 김유니스(소년부)

시론

나의 묵상·단상·공상

김소일 장로(70구역)

베드로와 바울

성경에 나타난 베드로의 성격은 급하고 예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않고 즉각 반응하는 사람으로 우리와 너무나 비슷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귀한 사도가 되어 만인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는 성인이 되었다.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던 분이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는 핍박하는 권세자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사도들의 힘으로 예수님의 도(道)는 부흥하기 시작한다.

그러한 베드로가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훨씬 후배인 바울에게 책망을 받는 장면을 목도하게 되고 위선자라는 비난을 들었으며 또 망신을 당하게 된다. 더군다나 바울은 갈라디아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사실을 기록하여 모든 성도들이 다 알도록 선전하였다.

"그 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에서 기록을 찾지 못했으므로 의문으로만 남게 되는데 "그렇게 망신을 당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 내가 만약에 베드로였다면 바울의 버릇없는 행위에 대하여 화를 내며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여러 교회에 알리며 분란을 일으켰을 것이다. "그랬다면 예수님의 도(道)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죽음으로 진리를 살리는 십자가의 도를 실천한 것이다.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밀알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 12:24)

선악과(善惡果)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되 선악을 스스로 판별할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 인간은 사단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선악을 판별할 능력이 생겼으며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행복하게 살았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좋고 나쁜 것을 내 멋대로 생각하고 투쟁이 생기고 사치와 허영이 생기고 이기심이 생겼나보다. 만일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선악을 판별하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것이 나의 의문 사항이었다. 그런데 한 깨달음이 왔다. "올바르게 선악을 판별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구나!"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셨으나 문자적으로만 선악을 잘못 판별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먹은 선악과로 인하여 인간의 육체와 정신이 잘못 되었으니 고치는 방법은 언행을 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만 선악과를 먹은 죄에서 구원 되겠구나!"

제비뽑기

사도행전 1장 12~26절에서 사도 1명을 뽑는 장면이 나온다. 이때 모인 인원은 120명이며 지도자는 베드로였다. 피택인의 자격은 '요한의 세례로부터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와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뽑는 목적은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여러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을 천거한 것 같다.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맛디아이다. 그 다음에 저희가(120명이) 기도했는데, 기도 내용은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 보여 달라는 것'이다. 그 결과 두번째로 천거한 맛디아를 뽑았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뽑으면서 부정과 부패가 생겨나고 이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인간의 교회로 전락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차라리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제비를 뽑으면 어떨까?" "교회법에 교인의 2/3의 찬성이 필요하다면 제비뽑힌 사람들을 교인들이 가부(可否) 투표를 하여 2/3를 얻는 방법은 어떨까?"

구원

지난 7월에 교회의 동호인 모임에서 안 사무엘 목사님과 같이 장애인 교회에 갔었다. 그 분들을 돕기 위해서 갔었지만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던 바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았다.

그때 우리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정신이상이 된 상태로 자신의 몸을 학대하고 자기 눈을 크게 상처내어 실명을 한 청년을 만났다. 그는 지금도 계속 자학하면서 뜻모를 소리를 지르며 괴로워 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계셨다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듯이 그도 고치셨을텐데…" 그를 보면서 측은한 마음과 처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함께 생겼었다.

그런데 몇 달 후 엉뚱한 깨달음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 "정말 지옥은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과 "그는 왜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라는 의문 뒤에 "나는 확실히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깨달음이었다.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다.

회개

TV 드라마 '왕과 비'에서 임동진 장로님은 수양대군의 역을 하시면서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한다. 수양대군의 역할이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야 명연기자가 되는 역이기 때문이다. 장로가 하나님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도리어 비난을 받아야 되므로 괴로우셨던 것이다. 그러나 장로님은 비난을 받지 않고 그 역을 잘 감당하셨나. 그 이유는 세조가 죽기 전에 극심한 피부병으로 얼룩진 얼굴을 시청자들에게 보이며 온 몸을 긁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회개를 했던지 그 모습이 시청자들의 머리 속에 매우 강렬하게 각인된 것과 임 장로님이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 역을 하셨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회개는 구원을 이루고 조금 먼저 회개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커다란 힘이 됨을 교훈해 준다.

기고

안 사무엘 목사의 이야기 시리즈 (3)

안사무엘 목사

임영수 대제사장에 대하여

1. 구십 구년 구정 즈음하여 임영수 대제사장이 제사장(부목사)들에게 이르시되 강당 건물도 새로 섰으니 구정 연휴에는 안전을 위해 제사장들이 하루씩 나와 성전을 지키는 것이 좋겠다 하시더라 이에 내가 가로되 대제사장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나이다 하니 대제사장이 그대로 믿으시더라 이는 사무엘이 대답 하나는 잘하는 편이더라 2. 이에 내가 속으로 이르되 대제사장이 으레 걱정이 되어서 한 번쯤 말씀하시는가 생각하고 구정 연휴는 가족들과 보내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함이라 3. 구정 전날 주일 저녁에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에게 이르시되 내일부터 일직을 서더냐 하실 때에 모두가 유구무언이거늘 4. 이에 대제사장이 적지 않게 노하여 이르시되 제사장들을 믿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려 했더니 이렇게 하면 되느냐 질책하시더라 5. 이에 내가 얼굴을 들지 못하여 가로되 대제사장이여 나를 용서하라 나를 용서하라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음이라 하여도 대제사장의 감정이 풀리지 아니하여 말씀을 계속하시더니 내 입에서는 용서하라는 방언이 자동으로 흘러 나올 뿐이더라 6. 그때에 또 내가 두 가지를 경험하였더니 하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에게 거짓말하여 혼이 떠나 죽은 사건이니 이는 내가 죽지 않고 시방도 살아 있으니 은혜 위에 은혜임일러라 7. 또 하나는 바울이 경험한 사건이 내게도 나타났더니 그때에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나 단지 온몸에 식은땀만 흐르고 있음을 알겠음일러라(셀라) 8. 연초에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이르시되 건물에 못을 박으면 건물이 쉽게 상하니 드릴로 구멍을 먼저 뚫고 거기에 못을 박는 것이 좋음이라 하시고 9. 또한 이르시되 성전 곳곳에 둔 플라스틱 쓰레기통이 참으로 멋이 없어 보이니 품위 있고 보기 좋은 것으로 놓으라 말씀하시니 참으로 섬세한 분이시더라 10. 또한 우리가 거하는 방에 화분 몇이 있더니 물을 주지 아니하여 말라 비틀어져 가매 11. 대제사장이 화초를 바라보며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화초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느냐 영혼을 구한다 하는 자들이 눈에 보이는 생명조차 살리지 못하더냐 하시니 이는 아비가 자식에게 함과 같이 하시더라 이에 우리가 대제장 앞에서 무구무언이 되었거늘 12.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쎔통이다 하시매 내가 주를 째려보려 함에 주께서 습관을 좇아 슬그머니 피하시더라 13. 이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교훈하시니 무슨 말을 하리요 14. 이에 내가 가끔 주일 저녁 찬양 예배시간에 대제사장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됨이니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하여 우신다 하매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헌금에 관하여

1. 사무엘이 주일예배시에 성도들을 맞이하며 성전 문 앞에서 인사하더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됨이더라 2. 부부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갈 때 주로 여자만 헌금을 함이니 이는 남자의 몫까지 챙겨 내는가 생각하나 여전히 하나님은 여자만 드린 것으로 생각하실 것임이라 3. 이는 그래도 조금은 괜찮다 생각함이니 이보다 더 가관인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임이라 4. 네 명의 식솔이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에 어미만 헌금을 하는 것을 보게 되니 내가 심중에 이르되 야구장에 들어갈 때도 표 한 장으로 식솔들을 입장시키겠느냐 하며 머리를 흔들게 됨이라 5. 주님의교회 성도수가 삼천여 명에 이르나 이천여 명일 때 나오는 헌금액과 별 차이가 없더라 6. 이에 십일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됨이니 헌금을 강조(요)하지 않는 주님의교회를 만만히 보고 오는 성도들은 손을 들라 하면 모두가 주님의교회를 떠나겠음이라 7. 가이사에게 탈세하기를 즐겨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도 즐겨할까 두려워함이니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지 못하시더라

선거에 관하여

1. 이전에 임직자 피택을 위한 선거가 있더니 사랑 없는 소리가 많이 울리더라 2. 떡은 나누면 적어지나 말은 나누면 늘어나는 법이니 3. 사실에서 멀리 벗어난 말들이 제멋대로 춤을 추더라 4. 어떤 이는 선거가 잘못되었으니 내가 엎어버리겠다 하고 어떤 이는 주님의교회를 떠나겠다 하니 5.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면 주가 엎으실 것이요 떠나시면 주가 떠나실 것이니 사람이 염려할 바가 아니로다 6. 우리는 참기 어려운 일을 보면 때로 베드로처럼 말고의 귀를 잘라 버리려는 격정(激情)이 일어나곤 하니 이는 우리가 스스로 주와 의형제를 맺었다 착각함이라 7. 이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칼솜씨 좋아서 말고의 귀를 자를 수 있었더냐, 아니라 내가 옆에서 보니 그의 눈은 말고의 머리 정수리를 향하여 치려 하였으나 손이 심히 떨려 실수로 귀를 자른 것이라 하시며 8. 다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손놀림이 뛰어나서 작디작은 귀를 잘랐다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임이라 하시더라 9. 이에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말고의 귀를 잘라 버린 베드로의 수고는 모두 다 헛것이 됨이니 이는 주께서 다시 말고의 귀를 붙이셨음이라 하더라 10. 우리는 모두가 말고의 귀를 자르려 하는 자이더니 주는 여전히 말고의 귀를 붙들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임이라

예배에 관하여

1. 요즘도 예배 시간에 휴대폰 소리가 울리더니 이는 이전에 들리지 않던 소리더라 2. 이에 제사장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어찌하여야 이 소리를 없앨 수 있을까 하더니 3. 혹이 가로되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다 함께 휴대폰을 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면 어떠하겠느냐 하니 참으로 좋은 생각이라 대제사장도 참으로 기뻐하시겠음이라 4. 성경에 이르시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시니 이제는 그 말씀이 이렇게 바뀌어야 하겠음이라 5. 예배하는 자가 휴대폰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참으로 휴대폰을 가진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7. 이는 주께서 휴대폰을 끄지 않고 예배드리는 자를 엎으시기 위함이라 7. 이에 내가 경계하노니 우리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질까 두려워함이라

건축 헌금에 관하여

1. 사무엘이 헌금에 관하여 또 이야기한다 하여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까 두려워함이니 그래도 내가 맞아 죽을 각오하고 기록해야 하겠음이라 2. 주님의교회가 구십 이년 초에 논현동 YMCA에서 교육관을 얻기 위해 교육관 헌금을 드리자고 하였더니 육억여 원의 헌금이 모아졌더라 당시 성도의 수는 사백여 명에 불과하였더라 3. 하여 삼천여 명이 드린 건축 헌금의 액수를 그때와 비교해 보니 성도들의 참여가 부족함이 아니겠는가 생각할 때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시니 내가 감사히 여겼더라

춤과 음악을 주신 하나님

김두련 집사(70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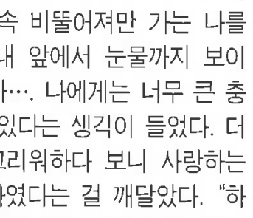
주를 찬양하라
그의 신전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
하늘의 권세를 지니신 그를 찬양하라
그의 강대한 권능을 찬양하라 : 그의 놀라운 위대함을 찬양하라
트럼펫 소리로 찬양하라
그의 강대한 권능을 찬양하라, 현악기와 하프로 찬양하라
템버린 소리에 맞춰 춤을 추면서 찬양하라 :
모든 줄이 있는 악기와 오르간으로 찬양하라.
커다란 심벌즈 소리로 찬양하라 :
높이 울리는 심벌즈 소리로 찬양하라
모든 호흡이 있는 것들은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 다윗의 찬양

가끔 "언제부터 춤을 추었어요"라는 질문과 함께 어느덧 춤이라는 전공으로 춤을 가르치는 지도자의 입장에까지 서게 된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어린 시절 음악 소리만 나면 춤을 추었던 것을 생각해볼 때 즉흥적인 춤은 인간의 의지와 관계 없이 흥에 겨워 나오는 선천적인 몸짓인 것 같다. 우리는 심장 소리, 맥박, 음성을 통하여 리듬과 멜로디를 자연스럽게 느끼며,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음악과 살아 있는 대화를 하는 것이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움직이는 모든 몸짓이 춤이요, 심장의 고동소리, 음성이 바로 음악인 것이다. 이 선천적인 달란트를 좀더 깊이 갈고 닦아 많은 땀과 연습의 결실이 있을 때, 춤과 음악을 통하여 살아가게 되리라 본다. 춤과 음악이라는 달란트가 있는 것도, 춤출 수 있는 건강과 체력이 있는 것도,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도, 이 모두가 우리의 노력과 관계없이 부여 받은 것임을 느끼곤 한다.

성경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6일 동안 지으셨다고 한다. 우리의 몸짓과 음악 속에는 많은 대화가 있으며,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육신과 달란트, 생명을 마땅한 본분대로 사용치 않고 자신의 소욕대로 불의하게 사용한다면 무엇이라 말씀하시겠는가? 그릇에 독을 담으면 독그릇이 되고 보약을 담으면 보약 그릇이 되어 먹는 이마다 건강해지듯이 우리의 육신·생명·달란트를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의한 지체가 될 것이다. 성경에도 춤과 음악은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할 때 사용했으며 특히 음악은 마음과 영혼을 성결하게 하는 데 쓰여졌던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의 몸은 어떤 그릇으로 쓰임 받아야 하는가?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떠나간다. 하나님은 영원히 썩지 않는 것을 심으라고 하셨다.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영혼을 주셨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들을 수 있도록 많은 악기를 배열해 놓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영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들의 육신과 영혼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행동할 때, 하늘의 소리와 음악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 안에 살아서 역사할 때, 많은 영혼이 깨끗해지며, 우리 역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같이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새로운 2000년에는 하나님이 주신 육신·달란트·생명을 자기의 소욕대로 사용치 말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과 마음, 영혼을 갖고 그분의 음악과 춤 능력의 말씀을 우리의 지체에 담아서 선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 쓰임 받도록 노력해 보자. 새로운 2000년에는 이 땅의 고통과 슬픔, 어두움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임명하신 선하고 깨끗한 대제사장이 되어보자.

1999년을 보내며



동희제(고등부)

TV에서 가끔씩 소년소녀 가장의 얘기가 나올 때면 "참 불쌍한 아이들이구나" 하며 TV 채널을 돌리곤 했다. 그런데 TV 속의 그 아이들처럼 나도 그와 같은 눈물을 흘리리라곤 상상도 못했다. 언제나 같이 있을 줄 알았던 우리 엄마가 1997년 8월 12일 암으로 하늘나라에 가셨다. 그 이후로 내 삶은 엄마가 계셨던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바뀌어 갔다. 한창 예민했던 사춘기 시절에 잃어버린 엄마의 생각은 내겐 너무나도 충격적인 상처였고 돌이킬 수 없는 과거로 돌아가려는 내 부질없는 노력도 어느새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쌓여갔다. 우리 가족이 함께 이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나의 간절한 기도를 저버린 듯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저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매정할 뿐이었다.

"정말 왜 그러셨을까?"

언젠가 예배시간에 목사님께서 'No'도 하나님의 응답 중 하나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뚤어져만 가는 나를 아빠는 너무나도 안스러워 하시며 결국 내 앞에서 눈물까지 보이셨다. 언제나 강한 모습만 보이셨던 아빠가…. 나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다. 그때 내가 너무 바보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이상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엄마만을 그리워하다 보니 사랑하는 동생 윤제와 아빠한테 너무 소홀하게 대하였다는 걸 깨달았다. "하나님은 나에게 기회를 주실거야…"란 희망과 함께 "날 위해 살자. 엄마말구 날 위해서…"라고 나는 다짐한다.

그리고선 1999년에 우린 새 엄마를 만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점점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내 모습에 엄마 아빠 모두 기뻐하시며 기대를 하신다. 1999년은 나에게 너무나 의미 있는 해였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며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게 되었다. 다시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린다. 엄마한테도 너무 고맙다. 벌써 사계절을 엄마와 같이 보내면서 니기 그전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살아 계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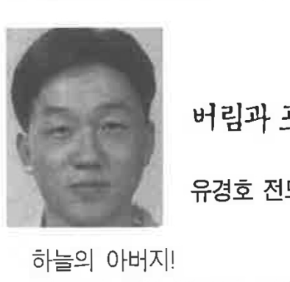
버림과 포기의 길

박정애(청년1부)

이제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2000년을 맞이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기대로 인해, 올해를 마무리하는 마음은 이 세상 누구라도 다른 한 해를 마무리지을 때와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먼저 2000년을 맞는 설레임을 잠시 접어두고, 지나간 날들을 되새겨 보며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지 않는다면 2000년이 되어도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는 것은 당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같이 그대로 자신의 만족과 이익을 먼저 채우려는 마음을 앞세우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민감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변화될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교회 청년부는 여러 해에 걸쳐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교역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 청년부 형제·자매들의 열심과 주변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우리가 해결해 가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지금의 의존적인 나약한 신앙인의 모습을 버리고 건강하고 능동적인 신앙인이 된다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 각 지체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모나고, 흠집이 있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러 주셔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하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고 사는 듯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불러 주신 귀한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다른 모습을 인정해주지 못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우리의 몸이 정말 다양하고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진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듯이, 우리의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맘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그것을 잘라내 버릴 수도 없고 어떤 부분의 기능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여 자기 기준대로만 생각하고 그것을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자신을 이해해주길 바라는 데에는 익숙하고 타인을 이해해주는 것에는 서툽니다. 우리의 흠있는 모습대로 살려고만 하면 우리 공동체는 서로의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면서 조화를 이루어내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엎드려짐으로 우리의 시야를 좀더 넓혀서, 누군가에게 위로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위로를 줄 수 있는 능동적인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텐데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을 나누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새로운 2000년에는 주님의교회 청년부가 주님의 참 사랑을 느끼고, 그것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버림과 포기의 길

유경호 전도사(초등부)

하늘의 아버지!

아주 먼 길을 걸어와 12월이라는 작은 오두막집 창가에 앉아 양초에 불을 밝힙니다. 스산한 한줄기 바람이 바닥을 비질하다가 차가운 유리창에 볼을 비비고 지나칩니다. 한여름(夏)의 화려했음도 모두 여름(實)을 위한 것이었거늘, 나무는 자신의 눈물로 가꾼 소중한 여름(實)을 포기하고, 여름(實)은 자신을 지켜준 고마운 나무를 버리고 모두들 생명을 위한 '버림과 포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람은 지나간 자리에 자국을 남길지언정 뒤돌아보지 않는 것이어늘 회한 속에 젖어있는 아들은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게을렀던 지난날이 너무나도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땅속에 묻어 두었던 한 달란트를 꺼내어 참회의 눈물로 닦습니다. 한줄기 시(詩)가 참회의 눈물 속에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결단'이라는 이름으로.

두 번째 부르심

나는 가나안을 향해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불렀는데
너는 하란에 머물러 있구나

나는 가나안을 주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불렀는데
너는 하란으로 만족하고 있구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라
하란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해서 안연하지 마라

잠을 깨라! 눈을 깨라! 일어나라!
그리고 떠나가라!
네가 갈 곳은, 네가 머물 곳은 가나안, 가나안, 가나안

이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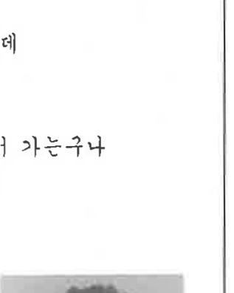
이제는 일어나야 한다
오래토록 누워있던 자리를 털고
이제는 일어나야 한다

이제는 버려야 한다
오래토록 머무르게 했던 그 자리를
이제는 버려야 한다

이제는 떠나야 한다
오래토록 머물렀던 그곳을
이제는 떠나야 한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도 이미 오래인데
아직도 하란에 머물러 있었구나
이제는 가야 한다
가나안을 아직도 요원한데 해는 저물어 가는구나
이제는 가야 한다 이제라도 가야 한다

새로운 피조물로



이상경 권사피택자(73구역)

20세기 마지막 달인 1999년 12월, 한 장의 달력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새 천 년이 시작되는 21세기 2000년 경진년(庚辰年) 1월 1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새 시대를 맞이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마음 설레임이요, 기쁨이요, 희망에 부푼 감동입니다.

특별히 나는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새 천년에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에 재림하실 것 같은 확신의 기대감으로 벅찬 환희가 온몸에 물결치기까지 합니다. 또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풍요 속에 영혼이 썩어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권력의 망령에 허덕이다 힘의 마왕의 시녀가 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상실된 인간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기쁨의 사건이 있을 것만 같습니다.

나는 20세기 후반 반세기 가까이 살아온 사람이고, 또 앞으로 21세기 전반 반세기 가까이를 살아갈 사람이라 그런지 감회와 감동이 유별난 것 같습니다. 급변, 다변하는 격동의 시대를 살아왔으면서도 가족과 함께, 이웃과 더불어 탈없이 살아왔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남보다 잘 나서도 아니요, 재력이나 능력이 뛰어나서도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로지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의 장막 속에 보호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10년 동안 '주님의교회'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도, 중등부에 속한 우리의 귀한 자녀들, 꽃과 같이 아름다운 청소년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일들은 나에게 너무나 큰 보람이요 자랑인 것입니다. 더욱 귀한 권사의 직분까지 맡기셨기에 더 말할 나위 없는 영광의 일임이 틀림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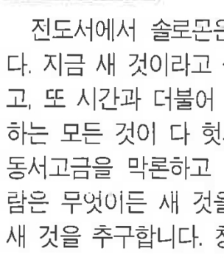
20세기는 돌아보기조차 두렵고 끔찍스러운 큰 전쟁, 큰 재앙, 공황 등이 점철된 한 세기였습니다. 금년 한 해만 보더라도 나라 안팎으로 크나큰 사건들로 얼룩져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했었습니다. 순진무구한 어린이들과 패기가 넘치는 청소년들이 불더미 속에 묻혀 그 아까운 목숨들을 잃었습니다. 대만·터어키에서는 뜻밖에 일어난 지진에 의해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땅을 치고 가슴 쥐어 뜯으며 통곡하고 싶은 마음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살았으면 좋을 법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불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것은 아닐까? 지구가 산산조각 나는 종말의 날이 오는 것은 아닐까? 두려운 공포감이 엄습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통해 소망을 주셨기에 살아 계신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며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다릴 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 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후 5:17)

2000년 동터오는 새벽과 더불어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주님의교회'의 종으로, 다시 오실 주님,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비가 오고 난 뒤 세상이 맑고 투명하게 돋보이듯이, 우리 세상의 혼탁한 공기가 걷히고 밝은 소망의 미래를 약속하는 찬란한 주님의 광채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장순현 권사(30구역)

진도서에서 솔로몬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미 과거에도 있었고, 또 시간과 더불어 헌 것으로 변하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새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은 무엇이든 새 것을 얻게 되면 기뻐하고 만족해하며 새 것을 추구합니다. 청소년이 싱그러워 보이고, 새 가구가 마음에 들고, 갓 피어난 꽃이 아름답고, 새 집·새 차·새 옷이 아무래도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집안의 가구도 이리저리 바꾸어 보고 회사는 조직이나 기구를 개편해서 변화를 주려고 애씁니다. 이런 이유로 인간의 문명과 문화가 발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 새 것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새 것을 찾아 헤매게 하는 약점으로 우리를 배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지났다 하여 쓸만한 새 것을 헌 것으로 착각하고 미련없이 버리기도 합니다. 근래 新知識人, 新世代, 新經營, 新思考니 하며 거리마다 신문마다 온통 신자(新字) 투성입니다.

뉴 패러다임, 뉴 에이지, 뉴 밀레니엄이라는 외래어까지 곁들어져서, 가정 주부로서는 이들 새로운 용어를 이해하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토록 오래 동안 추구해온 이 모든 새 것들은 겉으로 나타난 현상으로서의 새 것, 하드 웨어로서의 새 것일 뿐, 그 근원적 동인(動因)으로서 마음과 정신의 새 것, 사고방식의 혁신이나 개혁 같은 변화의 추구에는 우리 모두 보수적일 뿐 아니라 소홀히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새 천 년에 다시 웅비(雄飛)하려면, 속 마음이 새 것으로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우리 예수교 장로교는 근본적으로 개혁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며, 또 성경에서도 새 것과 새로움을 유달리 강조하는 것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날로 새롭도다(고후 4:16), 새 사람을 입다(골 3:10), 심령으로 새롭게 되다(엡 4:23), 새 계명(요 13:34), 새 교훈(막 1:27), 새 언약(고전 11:25), 새로운 피조물(고후 5:17), 새 사람(엡 2:15), 새 하늘과 새 땅(벧후 3:13), 새 이름(계 2:17), 새 예루살렘(계 3:12), 새 노래(계 5:9). 대학에도 日新 日新 又日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천 년을 맞이하여 문자 그대로 새 신자, 새로운 신자, 새 기독인이 되어야 합니다. 환골탈태(換骨奪胎),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창조적 파괴(創造的 破壞)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 것과 헌 것을 구별하는 혜안(慧眼)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온 진리를 헌 것으로 착각하고 버리는 우를 범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옛날부터 있어 왔다 하여 헌 것은 아닐 것입니다.

2,000년의 한국 기독교가 새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개혁의 이름으로 생각 없이 버려 세속화되는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든지 버리지 않아야 할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우리가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 그리고 옛부터 있어 던 진리가 있습니다.

"네 마음을 다 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 22:37-40)

가는 해 오는 해 - 참마음으로 기도를

전세표 장로피택자(21구역)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또 저물어 간다. 신문에선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되어 간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허리띠를 조이고 열심히 살아온 20세기 마지막 한 해였다고 생각된다. 또 주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많이 베풀어진 해였다. 세계 도처에서 대지진, 기상 재해가 발생하여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앗아 갔는데도 우리 나라는 IMF 위기도 어느 정도 극복되고, 홍수의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풍년을 이루었으니 하나님의 가호였다고 믿는다.

그러나 어두운 구석도 많이 노출되어 우리를 슬프게한 한 해였다. 화재로 숨진 유치원 어린이들, 고등학생들의 사고 소식을 접하고 우리는 함께 울며 기도했다. 주님께서 하늘 나라에 간 어린 넋을 위로해 주십사 하고, 기성 세대의 잘못이 낳은 참사에 각 언론매체들은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한다고 떠들어댔지만 과연 진심으로 속죄하고 반성한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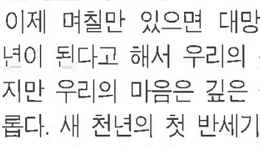
고급옷 로비 사건으로 증언대에 앉은 세 여인은 각기 기독교인임을 내세우며 진실을 말한다고 했지만,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요즈음 세상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싫어하는 말 중의 하나가 교회에 다닌다고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라고 한다. 교인임을 밝히기에 앞서 기독교의 교리를 남이 모르게 실천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박수와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사회는 밝고 명랑해지고 교회는 '성전(聖殿)'이 될 것이다.

20세기는 크게 보면 혼돈의 시대였다고 생각된다. 두 번에 걸쳐 세계 대전을 겪었고 이데올로기 전쟁이 한동안 계속되다가 최근에 와서는 민족 분쟁, 경제 전쟁으로 그 양상이 바뀌었다. 이제 그 혼돈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 천년의 첫 해를 맞을 채비를 하고 있다. 시작이 반이란 말도 있듯이 21세기도 그 첫 해가 뜻깊고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희망의 새해라고 하지만 우리가 사는 여건이 갑자기 좋아질리는 없으니까 모든 것이 다 바라는 대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밝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소해야 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다. 새 천년 새해에 우리 사회를 밝고 명랑한 복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다음 두 가지를 실천했으면 하고 바란다.

첫째는 우리들 마음 속에 있는 가식, 즉 거짓을 다 떨쳐 버렸으면 한다. 거짓을 말하는 것만큼 큰 죄악은 없다고 생각한다. 전 국민이 지켜 보는 앞에서 거짓 증언한 사람들도 교회에서 속죄의 참회의 기도를 해야 할 것이다. 잘못이라고 느낀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을 버리고 참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란다.

둘째로 기독교의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자는 것이다. 작고 궂은 일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동참하게 하자는 것이다. 작은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나 학교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쓰레기를 줍기도 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 등이 사랑의 실천 운동인 것이다.

20세기 마지막 성탄을 기리며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속죄하고 다가오는 새해의 축복을 기원하며 우리 모두 거짓을 버리고 참마음으로 기도하자.



새 천년을 바라보며

최현석(청년2부)

이제 며칠만 있으면 대망의 새 천년이 다가온다. 새 천년이 된다고 해서 우리의 신상이 크게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은 깊은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감회가 새롭다. 새 천년의 첫 반세기를 주도해 나갈 우리 기독청년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느냐에 따라 새 천년의 판도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20세기의 암울했던 잔재를 씻고 밝은 새 천년을 시작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느냐가 달려 있는 것이다. 같은 청년으로서 새 천년을 맞는 우리 기독 청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고자 한다.

오래전 한 사회학자는 한 나라가 망하기 전에 발달하는 산업이 있는데 그것을 '3S'라고 요약하고 있다. Sports, Screen, Sex가 그것이다. 요즘 청소년들을 사로잡고 있는 문화는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 '4S(3S+Song)'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극도로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문화들이다. 물론 이러한 문화는 인간 삶에 기쁨과 쾌락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여기에 너무 탐닉하고 몰두하게 되면 인간 삶의 깊은 고갈과 하나님을 찾을 만한 공간이 사라지게 된다. 새 천년에는 이러한 산업이 극도로 발달할 것이다. 우리 기독청년들은 이러한 문화에 함몰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취사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할 것이다.

20세기말은 돈과 경제적, 상업적 논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기였다. 모든 사람들은 맘몬의 힘 앞에 힘없이 무릎을 꿇고 맘몬을 숭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돈의 힘앞에 인권도, 정의도 무참히 짓밟혀 버렸다. 새 천년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우리 기독 청년들은 돈과 하나님 즉 두 주인을 숭배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돈이라는 것은 잘만 사용하면 아주 선한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다. 우리 기독 청년들은 돈에게 지배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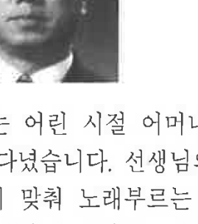
또한 새 천년에는 가정이 큰 위기를 겪게될 것이다. 이혼율이 급증하고 고아와 미혼모가 증가하며 그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탈선이 크게 예상된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새로 결혼하는 10쌍 중에 3쌍이 이혼한다는 통계를 보이고 있다. 우리 기독 청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질서를 고수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되신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일에 헌신해야 할 것이다.

우리 기독 청년들은 20세기에 미해결된 민족적 과제인 통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단일 민족으로 만드셨다. 크신 은혜기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단일 민족이 사상과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원수같이 갈라져 있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민족이 새 천년에 더욱 발전하고 약진하려면 통일은 필수조건이다. 우리와 같은 핏줄과 혈통을 가진 민족이 북쪽 땅에서 사상 유례없는 인권 유린과 굶주림으로 허덕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독인에게 이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새 천년을 맞는 우리 기독 청년들은 통일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독 청년들은 시야를 넓혀서 세계를 바라보아야 한다. 세상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해 고통과 비참함 가운데 울부짖는 많은 민족들이 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우리도 복음을 값없이 받았기에 또한 값없이 나누어 주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새 천년을 맞는 우리 기독 청년들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 예수께서 피로 사신 우리 기독 청년이 아니면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어 환한 빛 가운데로 인도할 자가 없다. 메마른 이 땅을 적시어 생명의 싹이 나게 할 자가 없다.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부르실 때 기꺼이 우리 젊음을 주님께 바치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한다.

간증



신앙고백서

최윤철 성도(28구역)

저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대구에 있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선생님의 성경얘기가 재미있었고, 피아노 반주에 맞춰 노래부르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9살 때 부산으로 이사간 후에도 그곳 교회에 등록하여 착실하게 다니고, 커서는 중고등부 활동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믿음은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어 매사를 따져보기 시작하면서 성경말씀이 의문투성이고 황당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에 대한 회의도 깊어 갔습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통하여 저처럼 미지근한 신앙을 때때로 질책하셨습니다. 그러한 질책이 저에게는 열심히 믿든지 말든지 처신을 분명히 하라는 요구처럼 들렸습니다. 확고한 믿음이 없이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저도 느끼고 있던 터라, 저는 결단을 내릴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생활을 청산하기로 했다는 결심을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크게 실망하시고 꾸짖으셨지만, 저의 뜻은 이미 확고했습니다.

교회에 발을 끊고 나자 오랜동안 몸에 익어온 생활패턴이 바뀐 탓도 있고 어머니의 실망감도 마음에 걸려서 한동안은 기분이 찜찜하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오랜 갈등에서 해방된 자유로움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그만 믿음의 싹은 남겨 두셨나 봅니다. 젊은이들이 흔히 그러하듯 저도 인생의 풀리지 않는 여러 의문들에 대하여 이따금 생각에 잠기곤 하였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어디서 왔는가'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으며 끝없는 저편 공간에는 무엇이 있을까?' '인간은 과연 성경 말씀대로 창조된 것일까, 아니면 다윈의 주장대로 오랜 진화의 산물일까?' 등등. 저는 제 자신이 매우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사고 때문에 성경말씀을 믿기가 더 어려웠다고도 생각됩니다. 그런 지도 한가지 확신한 것은 '인간은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신체적 기능을 자세히 들여다봐라. 하나하나의 기능이 너무나 오묘하게 작동하고 있지 않은가. 이처럼 완벽한 작품은 수억 년의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만들어질 수는 없는 거다. 그보다는 무한한 능력을 가진 그 어떤 존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완벽한 설계 하에 만든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각 기능의 오묘한 상호작용은 설명이 안된다." 창조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은 그러한 점에서 항상 저의 관심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교회에는 나가지 않았지만 종교논쟁이 붙으면 저는 열심히 창조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창조에 대한 믿음'이라는 끈으로 저를 하나님께 묶어 두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은 문제는 천지창조의 스토리와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어떻게 연결시켜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겠다던가 목사님께 여쭈어 보겠다던가 하는 적극적인 노력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들어온 설교 말씀으로 미루어 신통한 해답이 나올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는 동안 인간의 하찮음과 어리석음을 보면서 미물 같은 내 머리로 이해가 안되니까 못믿겠다는 것은 합리적이 아니며 오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는동안 하나님께서는 제가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셨습니다. 집사람은 결혼 당시 신앙이 없었는데 1980년 L.A에서 '허파에 구멍이 난' 병으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으면서 죽음이 먼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고, 전도를 받아 신앙의 씨앗을 갖게 되었습니다. 퇴원후 수술한 자리가 몹시 아파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전기와 같은 것이 지나가며 고통을 치유 받은 체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람의 신앙은 빠르게 자랐습니다. 집사람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된 것이 제 어머니의 끊임없는 기도 덕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성경말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많았지만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마음은 이미 한발짝씩 하나님께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집사람은 함께 교회에 나갈 것을 청하였습니다.

옛날의 갈등이 생각나 한동안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만 임씨름이 피곤하기도 하고 마음의 문이 하나님께로 조금 열린 탓도 있고해서 저는 80년대 초부터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뜨거운 신앙의 체험은 없어도 목사님들의 좋은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기독교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고, 아직도 세상 것을 훌훌 털지 못하는 제 자신을 잘 알기에 세례받기는 줄곧 거부해 왔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자신이 설 때 세례를 받겠다는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자주 말씀을 접하는 가운데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은 점점 깊어 갔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교회와는 담을 쌓고 지내던 동서와 처형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사는 모습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위대하심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잘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남아 있지만 삶에 빛과 생명이 되는 말씀들로 인해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면서 성경말씀을 사람의 이치로 따져서 믿으려는 것이 어리석게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큰 진리를 깨달았다면 지금의 사소한 의문들에 대한 해답도 언젠가는 주시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써 얻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은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도 세례를 받을 수 있겠다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교회에 발을 들여 놓은 지 40년이 지난 이제서야 세례를 받게 된 것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만, 이제부터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제가 좋아하는 성경구절 하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벧전 1장 24절)』

청년부

청년부 활성화를 꿈꾸며

한국 교회 대학 청년부의 위축, 그 원인은 무엇인가?

김원재 전도사(청년부)

우리 교회는 장년 중심으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교회이다. 금년에만 보아도 교회학교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증가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런데 유독 청년부만은 크게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등록한 청년으로만 볼 때는 청년 교인이 많이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년부에 참석하고 활동하는 사람으로만 볼 때는 그 증가치가 빈약하기 그지 없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것을 보다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필자는 우리 교회에 와서 청년부 사역을 한 지 2년이 되어 간다.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되겠다는 위기감을 느끼며,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던 끝에 여러 교회의 대학 청년부를 살피게 되었다. 그 결과를 정리하며 우리 교회 청년부를 새롭게 세울 수 있게 되고 문제점이 있다면 고쳐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쓴다. 한국 교회 대학 청년 사역을 전반적으로 고찰하기에 앞서 우리 교회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사항도 언급됨을 밝히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각 교회마다 대학 청년부가 공동화 내지 부실화되고 있는 원인은 우선 교회 내적 문제와 한국 교회 일반이 처한 교회 외적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교회 외적 문제는 모든 교회와 학생선교 단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지만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성장하는 대학 청년부가 있다는 점과 여전히 젊은이들이 모이고 있는 학생선교 단체들이 있다는 점을 보면 외적 환경보다도 우선적으로 교회 내적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내적 원인 중에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전문 지도자의 문제

누구를 가리켜 전문 지도자이냐 하는 점에 있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개념을 대학생 및 청년 사역을 직접 학생 및 청년 시절에 참여해 보았고, 학생 및 청년들을 위해 사역해 본 경험이 최소한 3년 정도 되며, 장기적으로 젊은이 사역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들을 전문사역자로 본다면, 대학청년부 위축의 가장 일차적 원인을 이런 의미의 청년 대학부 사역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서 찾아야 한다. 물론 교회의 풍토와 열악한 환경을 탓하여 종종 대학 청년부 사역자들이 대학 청년부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이유를 말하곤 하지만, 필자가 성장하고 활성화된 대학청년부에서 늘 목격하는 바, 일관된 요인은 준비된 지도자의 영향력이었다. 즉 대학 청년부를 지도하기 위해 적합한 전문 사역자가 나오지 않는 한 교회에서 아무리 대학 청년부를 키우고자 노력한다 하여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교역사 본인이나 교회 내에도 대학 청년부란 장년부를 사역하기 전에 잠깐 거쳐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한, 대학 청년부 사역을 위한 전문 지도자의 배출은 무척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젊은이들에게 이상과 꿈을 걸고, 전문 지도자로의 길에 발을 들여 놓은 사역자가 성령의 역사로 등장할 경우, 아무리 빈약하고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대학 청년부 사역은 멀지 않은 세월 내에 꽃피울 것이다.

현재 가장 많은 대학생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단체들의 경우 전문 사역자들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다. 대표적인 12개 학생선교 단체의 전임 사역자의 수는 총 약 1000명을 웃도는 것으로 '학원복음화협의회'는 추산하고 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신학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젊은이 사역에 철저히 헌신된 자들이며, 장기적으로 그 사역에 전념해 오고 있는 이른바 전문 사역자들이다. 교회에서도 이렇듯 전문성을 갖춘 지도자를 배출할 수 있어야 대학 청년부의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다.

2. 교육 철학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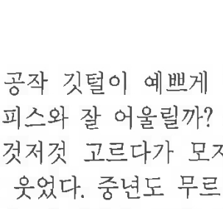
한국 교회는 일반 목회 전문가는 많이 배출하여도 특수 목회 전문가를 배출하기에는 무척 어려운 풍토를 갖고 있다. 전문 지도자가 교회에서 배출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 상층부 지도력의 교육 철학의 문제에서 기인한다. 우선 교회 내의 젊은이들에 대해서 교육의 객체로 보아야 하느냐 교육의 주체로 보아야 하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 한국 교회는 시대와 젊은이들의 변화를 거의 못읽고 구태의연한 중에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아직도 주일학교의 교사 공급의 상당수가 신앙적으로 잘 훈련되지 못한 청년층에게 아주 무거울 정도로 의존되고 있다. 그들을 교육의 주체로 대접하는 것은 무척 고무적이긴 하지만, 한국 교회의 지도력은 기독 학생 청년 일반의 영적 상태와 수준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주일학교 교사들의 실태을 보면 교회에서 훈련되지 못한 청년들을 너무 쉽게 가르치는 입장에 놓다 보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식의 안 좋은 분위기가 교회 안에 아주 두텁게 형성된 것이다.

게다가 교회의 지도층이 대학 청년부에 교육적 투자를 하기에 뭔가 동기 유발이 잘 안되고 있다. 아주 좁은 식견으로 말하자면 잘 키워서 남주기는 아까운 것이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에게 투자해 보았자 별 소득이 없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다.

대학 청년부를 위축시키는 교회 내적 요인을 지면 관계상 간단하게 두 가지만 살펴보았다. 사실 한국 교회 대학 청년부의 80% 이상이 불과 40명 이하의 대학생 및 청년들이 모이는데, 그것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많이 모인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장년 교인의 성장에 비하면 청년들의 수가 빈약함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청년들은 교회의 미래이다. 그래서 대학 청년부 사역은 그 교회 미래의 척도이다. 그런데 대학 청년 사역은 교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지원이 있어야만 되는 사역이다. 청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지속적 관심을 기울이며, 그들이 봉사로 분주하기보다는 신앙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며 기다려 주는 것이 절대로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년들의 부흥 성장을 위해서 때마다 기도하며 중보하는 것이 가장 절실하다 하겠다.

수필



모자

조경옥 집사(53구역)

공작 깃털이 예쁘게 장식된 이 모자가 지금 입은 밤색 투피스와 잘 어울릴까? 친척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나는 이것저것 고르다가 모자를 쓰면서 거울을 들여다보며 싱긋 웃었다. 중년도 무르익은 이 나이에 성장(盛裝)을 하고 나선 내 모습을 보며, 참 아름답다는 찬사를 보내주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라서 웃음이 나왔던 것이다.

어릴 적 '비비안 리'나 '헵번'이 예쁘고 화려한 모자를 쓰고 나온 영화를 보면서 나도 한 번 그런 모자를 써보고 싶었다. 그러나 내 주위에 모자를 쓰고 다닌 사람도 없었거니와 그런 멋진 걸 쓰고 나선다는 게 부끄럽고 자신감이 없어서 부러워만 하며 지내왔다.

그러다나 20여 년 전에 오빠가 밍크 모자를 사왔다. 내 얼굴이 작아서인지 고급스러운 이 모자가 멋있게 잘 어울렸다. 그 모자만 쓰고 나서면 왠지 어깨가 당당해졌고 자신감이 생겼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쁘다고 칭찬을 했다. 나는 겨울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늦가을부터 이른 봄까지 자랑스럽게 쓰고 다녔다. 그후부터 내겐 모자가 참 잘 어울린다는 걸 알고 모자 수집을 시작했고 지금도 그 밍크 모자를 애용하고 있다. 몇 년 후 남편이 독일에 교환교수로 가게 되었을 때 나는 거기에 1년 살면서 보물찾기를 하듯 맘에 드는 모자만 찾아다녔다. 백일 갓 지난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백화점마다 모자코너만 들락거렸다. 수달피, 밍크, 여우털, 모직 모자 등 너무도 갖고 싶은 모자들이 가득했다.

바겐세일 마지막 날 90% 할인 값에 예쁘고 값진 모자 10여 개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아! 그때의 기분을 누가 알아줄까. 횡재라도 한 것처럼 나는 흥분했다. 집에 돌아와선 남편 몰래 이것저것 써보고 거울 앞에서 혼자 즐거워 했었다.

오늘 쓴 밤색 모자도 '노블리스 오블리제'들이 다니는 그 유명한 런던 '헤롯백화점'에서 3만 원을 주고 산 아끼는 모자 중의 하나다.

갖고 싶었던 '데무' 브랜드 모자는 십만 원 안팎이라 구입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어느날 우연히 우리 동네 본사에서 균일가 세일을 했다. 나는 가게문이 열리자마자 모양과 색상을 가리지 않고 20개를 몽땅 사왔지만 한두 개 값에 불과한 떨이세일이었다. 못말리는 모자광, 이렇게 사들인 모자들이 100여개다. 그래도 누군가 특이한 모자를 쓰고 있으면 내 눈은 반짝 빛이 난다.

이런 나의 수집벽을 알고 내 친구들이나 친지들은 여행가면 선물은 으레 최신 유행하는 모자를 사들고 와 나를 즐겁게 해준다. 나는 가끔 백화점 바겐세일에서 오만 원이 넘지 않는 윗옷을 사거나, 여행 중 90% 할인가에 옷을 서너 벌 사오면 십 년은 입는다. 그러나 모자만큼은 오만 원이 넘어도 망설이지 않고 최고급으로 산다. 이렇게 사계절 모자를 쓰다보니 옷과 매칭칼라를 잘 해서 어울리게 하는 감각이 생겼다. 윗도리와 같은 색의 모자나, 아래옷과 같은 색 모자, 모자와 핸드백, 모자와 구두는 같은 색깔로 통일감을 주면 한층 멋스럽다. 겨울엔 긴 스카프도 곁들여서 한다. 그러나 체크무늬 원피스에 꽃무늬 모자는 안 어울린다.

유럽인들은 어릴 때부터 조화로운 색채 감각을 익혀서인지 그곳에서 만난 할머니들의 차림새가 참 멋져 보였다. 여러가지 액세서리와 잘 어울리는 모자를 쓰고 한가하게 산책하는 모습에서 우아하고 깊은 멋을 느꼈다.

얼마 전에 우리 나라를 방문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모자와 옷차림새에 대하여 당시 신문은 움직이는 패션 광고라며 칭찬이 대단했다. 여왕의 모자는 정말 품격에 어울릴 만큼 멋지고 아름다웠다.

작년 가을엔 친구 셋이서 설악산에 1박2일 여행을 갔다. 가방을 열어 보니 모두 모자가 5개씩이나 들어 있었다. 우리는 끼니때마다 모자를 바꿔 쓰고 식당에 갔는데,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다. 세 여자가 개성있는 모자를 쓰고 나타났으니 눈길을 끌만 하였으리라.

지난번엔 진도모피 패션쇼에 주부 모델로 초청을 받았다. 그곳에 있는 밍크 코트와 딱 어울리는 모자가 없어서 내 모자들로 조화를 이루어 감동적인 큰 박수를 받은 적도 있다.

이렇게 모자를 쓰면 멋도 있고 경제적이기도 하다. 파마값이 안 들어서 좋고 머리 손질하러 미장원에 가는 시간 낭비가 없어서 좋다. 생머리에 모자만 쓰면 언제라도 외출 부담이 없다.

요즘은 모자를 쓰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아름다운 여인은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다. 모자를 쓰는 것도 개개인의 취향이겠지만 옷차림처럼 T·P·O(시간·장소·목적)에 맞는 차림이면 좋다. 성장한 옷차림에 어울리는 모자를 쓰면 한층 더 세련되고 스마트하다.

이젠 의식주에서도 한 차원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고 있다. 젊은 차림새로 당당하게 입는 패셔너블한 멋도 아름다움이요, 동시에 내면의 멋이며 우리 사회를 밝게 해주고, 성형수술 하는 것도 자기만족이다. 할 수 있는 한 자기변신으로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해보자.

횡설수설

무겁나요? 다 알지만 다시금 생각해봅시다!

오늘날 지구촌은 전근대와 근대성이 혼재하고 현대와 탈 현대성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로서 가치의 혼돈이 그 특성이라고 하겠다. 급격한 변화 속에 다가오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우리 믿는 이들의 '삶의 질'이 어떻게 전개되어질지는 재음미해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시작과 더불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 생각해 봅시다! -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새롭게 생각해 볼 때이다.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세밀한 음성에 귀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또 오늘을 새롭게 살기 위해서는 어제의 삶에 대한 깊은 자성의 고찰이 필요하다. 그것은 다름아닌 **회개**일 것이다. 과거를 정리하지 않고는 **예수공동체**에 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는 이들이여!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보다 더 가치로운 인생을 삽시다.

존재 각자의 모순된 전통적인 틀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나아갑시다. 또한, 나보다 소외된 이들과 함께 생활해 봅시다. 진정 바른 **나눔**과 **섬김**, **봉사는 어떨까요?**

주님의교회가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 모두 가꾸며 나아갑시다. 그것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인생들에게 **녹음과 녹임을 당하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로의 진정한 **회복을 가지는 신앙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 용인에서 깊은 생각하느라고 밤을 꼬박 샌- 생각을 **박찬 용감한 천사**가 배상.

신앙 클리닉

Q. 성경에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결혼하는 당사자에게 상당한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처음에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한 후 남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과 결혼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목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A.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한다는 것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우상을 섬긴다든지 또는 불의한 생활 방식을 따라 살아간다든지, 잘못된 생활 습관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없다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한다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요즈음과 같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면 문제가 될 것 없습니다. 성서적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은 고린도전서 7장을 여러 번 읽어 보십시오.

교회소식

- 1월 5~7일까지 소예배실에서 교회지도자 세미나를 개최한다. 제직부서장·임직자·구역장·권찰 등이 대상.
- 11월 14~15일 교사 Partnership Trainning 개최. 장소는 소예배실.
- 11월 17~19일 성장과 치유 워크샵 개최.
- 11월 27~29일 당회원 세미나 개최.

법률상식

혼인신고

황용환 집사(변호사·72구역)

Q. 얼마 전에 결혼한 부부로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이 연서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민법 제812조) 즉 혼인신고는 혼인신고서 용지에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도장을 받아 여자의 호적초본을 첨부하여 남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나 현주소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혼인을 하면 여자가 남편의 호적에 입적하지만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중계인인 때에 남편이 아내의 호적에 입적할 수 있는 입부혼인도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3항, 호적법 제25조). 입부혼의 경우에는 남편이 처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나 현주소지에 호적을 입적합니다.

또한 이 경우 부부간의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고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하게 됩니다(민법 제826조 4항).

교우동정

▶ **결혼**
- 김동원·홍정원 집사(46구역) 장남 태유 군
- 김성호·정남덕 성도(48구역) 장남 영근 군
- 서우석 군과 박주향 양(청년부)
- 서길원 집사·고초순 권사(20구역) 차녀 은하 양
- 송재인·이인순 집사(14구역) 차녀 지은 양
- 최형규·김선희A 집사(14구역) 장녀 시영 양
- 이병식 장로·장순현 권사(30구역) 딸 은령 양
- 김규화·박은영 집사(33구역) 딸 현정 양
- 배홍자 집사(41구역) 딸 조현화 양

▶ **출산**
- 정혁진·김영심 성도(1구역) / 득남(해철)
- 김선용·이수영 집사(34구역) / 득녀(나연)
- 이후경·권지현 집사(35구역) / 득녀(영주)
- 서용석·고민숙 성도(36구역) / 득녀(나영)
- 김태순·김연희C 성도(43구역) / 득녀(동은)
- 정한조 목사·이상순 / 득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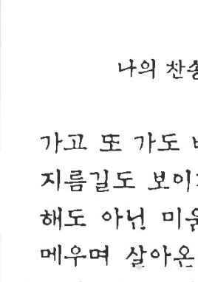
▶ **소천**
- 조수덕 권사(박정수·김희경 집사 모친) / 24구역
- 신정웅·김금숙 집사 부친상 / 21구역

▶ **이사**
- 김진국·유귀향 집사(1구역) /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우성A 316-2402 (0342-716-5609)
- 한정웅 안수집사·이혜란A 집사(1구역) / 성동구 성수1가 706 쌍용A 104-2202 (497-7994)
- 이종복·박순실 집사(6구역) / 송파구 잠실5동 주공A 504-1510 (414-4750)
- 최영미 집사(27구역) / 강남구 삼성동 AID 아파트 7-209 (543-6828)
- 진인기·하미혜 집사(34구역) /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A 307-104 (449-1502)
- 이석·김미영 집사(34구역) / 송파구 풍납동 231 현대리버빌 309-406 (473-7334)
- 박성혁·김은향 집사(35구역) / 노원구 상계10동 대림 마을A 5-1209 (933-0202)
- 민병준·이승란 성도(36구역) / 성북구 돈암동 616-100 한신A 204-1304 (928-7139)
- 서용석·고민숙 성도(36구역) / 중랑구 묵1동 신안1차A 101-1703 (975-4048)
- 지유철·김순희 집사(38구역) / 노원구 상계1동 1265 미주동방벽운A 103-102 (939-1302)
- 신계영 집사(39구역) / 강남구 삼성동 66-1 심포니하우스 302호 (543-8997)
- 김창길·최선숙 집사(40구역) / 노원구 상계동 동방미주벽운A 106-1202 (3391-5255)
- 공갑춘 성도(46구역) /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까치마을 우성빌라 108-103 (0342-718-3273)
- 안강현·최임희 집사(48구역) /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현대A 410-1104 (0342-703-5803)
- 김관호·박향숙 집사(49구역) /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09-9 3층 (0342-713-6391)
- 김성애 집사(52구역) / 관악구 봉천2동 동아A 103-1002 (423-3700)
- 박운석·정혜선 성도(52구역) / 송파구 풍납2동 한강극동A 108-610 (477-8847)
- 박상실 집사(54구역) / 서초구 양재동 336-4(1층) (575-2216)
- 엄혜숙 집사(62구역) / 강남구 청담동 43 청담우방A 101-1701 (514-7498)
- 강석영 목사 / 송파구 잠실동 299 402호 (2202-2998)

▶ **개업·동정**
- 김경덕 집사(47구역) / 하이콤 테크날러지 (548-6948)
- 오세윤 안수집사(70구역) / 공장 확장 이전 (0341-981-2591)
- 조선연·장윤경 집사(15구역) / 피부관리센터 벨담 (443-7142)

▶ **유학**
- 김경덕·이명순 집사(47구역) 딸 은하 양 캐나다 유학

시



내가 행하리니 새 일을 행하리라

이희숙 집사(70구역)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3:21)

가고 또 가도 바다는 보이지 않네 지평선에 닿은 지름길도 보이지 않네 바다도 아닌 땅도 아닌 화해도 아닌 미움도 아닌 상처를 우려내며 더러는 메우며 살아온 막막한 개막이 땅 고인듯 빠져나가다 뒷걸음질치는 썰물 불안의 그물을 간척지 가득 짜고 있네 길이 길을 지우며 쓰러지네 눈 먼 세상 꽃처럼 피고 지더니 한 세기가 또 그렇게 저무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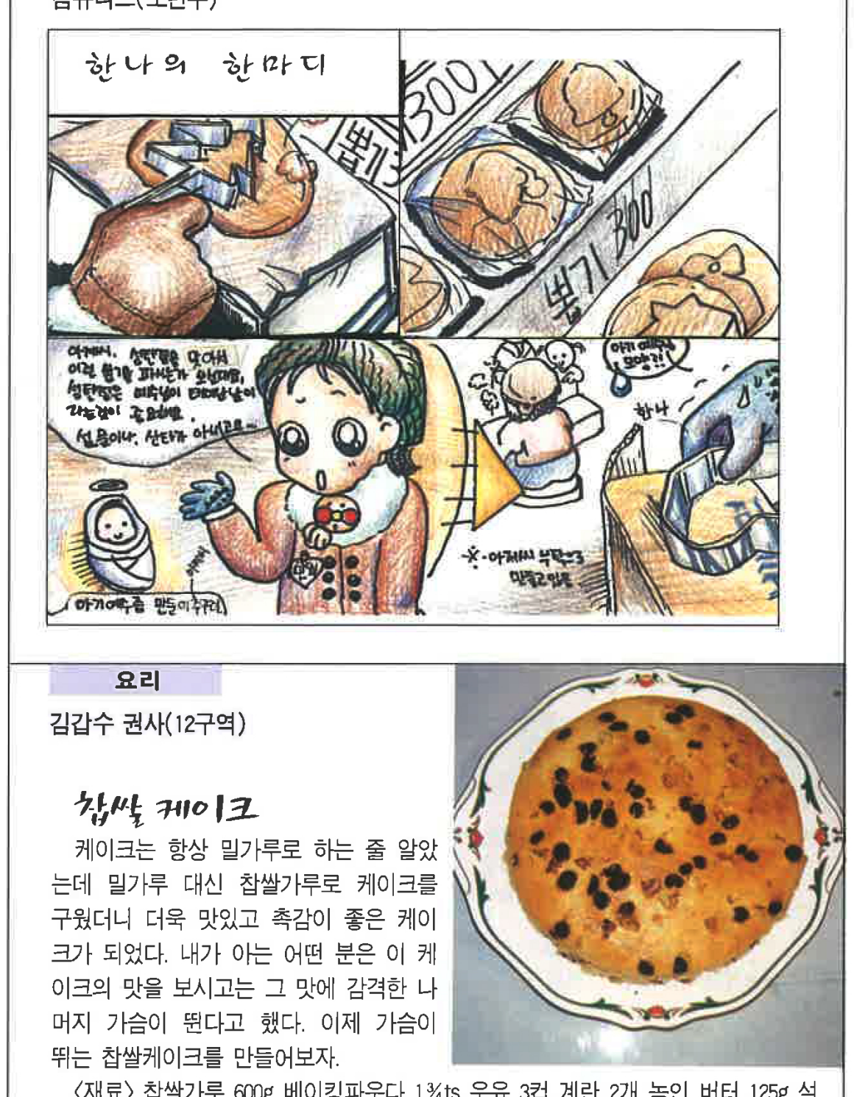
어두운 불의 세월 엎드려 기도가 되네

빛 살촉 한 줄기 기도의 열매
홍해를 가르듯 흑암을 가르며 지상에 뛰어내리네
이른 봄비 향내처럼 문마다 두드리네
새 생명을 깨우는 세미한 음성
문을 열어야 하리, 마음 문을, 몸을 가진 자
마음 밭 쑨 뿌리를 거두어야 하리
제 바닥에 갈앉은 신음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리
온갖 피조물의 목마른 신음 소리에도

순수 열정의 사람들 일어서네
새 생명 새노래로 화답하네
그 손끝 영혼의 불씨
이 땅에 평강의 새 천년 두루말이 펼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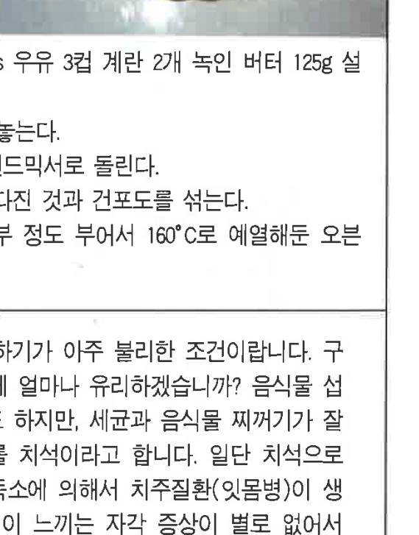
만화

김유니스(소년부)



요리

김갑수 권사(12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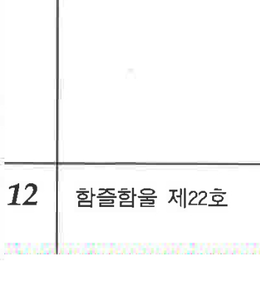
찹쌀 케이크

케이크는 항상 밀가루로 하는 줄 알았는데 밀가루 대신 찹쌀가루로 케이크를 구웠더니 더욱 맛있고 촉감이 좋은 케이크가 되었다. 내가 아는 어떤 분은 이 케이크의 맛을 보시고는 그 맛에 감격한 나머지 가슴이 뛴다고 했다. 이제 가슴이 뛰는 찹쌀케이크를 만들어보자.

〈재료〉 찹쌀가루 600g 베이킹파우다 1¾ts 우유 3컵 계란 2개 녹인 버터 125g 설탕 1컵 소금 1ts 호도 ½컵 건포도 ½컵

1. 찹쌀가루와 베이킹파우다를 체에 내려놓는다.
2. 우유, 달걀, 버터, 소금, 설탕을 넣고 핸드믹서로 돌린다.
3. ①과 ②를 잘 섞고 여기에 호도 굵게 다진 것과 건포도를 섞는다.
4. 케이크 틀에 버터를 바르고 재료를 7부 정도 부어서 160°C로 예열해둔 오븐에서 50분간 구워낸다.

의학상식



치아를 건강하게 간수하려면…

김찬숙 집사
(청아치과병원 병원장·59구역)

신체의 다른 부분과 비교해볼 때 구강 내의 조건이란 치아를 깨끗이 유지하기가 아주 불리한 조건이랍니다. 구강 내의 온도와 습도에 더불어 음식물 찌꺼기까지 항상 있다면 세균의 번식에 얼마나 유리하겠습니까? 음식물 섭취 후 3분 내에 잇솔질 하자는 것은 세균에게 영양분을 주지 말자는 것이기도 하지만, 세균과 음식물 찌꺼기가 잘 제거되지 않으면 시간이 경과하여 치아 표면에 굳어서 부착하게 되는데 이를 치석이라고 합니다. 일단 치석으로 굳어지면 잇솔질로도 잘 닦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치석에서 나오는 세균의 독소에 의해서 치주질환(잇몸병)이 생기게 되는데, 이는 대개 중년 이후에 잇몸이 많이 망가지기까지는 환자 자신이 느끼는 자각 증상이 별로 없어서 한참 진행된 후에야 발견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치과에서 가장 많은 경우가 치아우식증(충치)과 치주질환(잇몸병) 치료이니까 올바른 방법으로 잇솔질을 해준다면 크게 고생할 일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른 잇솔질인데, 잘 하고 있는지 확인 받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 필수입니다. 이때 치과에서는 환자가 아무리 바른 잇솔질을 하려 해도 이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알려주고 고쳐주게 되는데, 치열을 바르게 해주거나(교정) 부적절한 보철물을 새로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하얗게 해주거나(치아미백), 벌어진 치아를 막아 주거나, 빠진 치아 대신에 인공치아(임프란트)를 심는 것도 치과의학의 발달과 새로운 재료의 개발로 인해서 달라진 것이지만, 현대의 복잡한 생활과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에 따른 신체의 저항력 저하가 치아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치주질환이나 악관절증에선 아주 긴밀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항상 과로하지 말고 다른 전신적 질환의 유무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병원에 자주 간다는 것은 자주 아프다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정기적인 점검을 위하여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는 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치과도 일 년에 한두 번씩 찾아가서 자신의 치아상태를 살펴주어야 오래오래 내 치아를 지니고 아름다운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